東大新聞

發行人 金法麟
編輯人 李義演
印刷人 趙幹鉉
主筆 金法麟 均鉉

發行所 서울市中区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新聞社
電話②1685 1686 2611

(每週金曜日發行) 六個月分·200원

關係者言 活潑히 推進

研究機關設置의 劃期的斷案

大學博物館, 「랭기쥐·센터」 比較文學研究會, 東國禪院 등

學生會任員選擧를 앞두고 總長金法麟博士는 一八日上午 다음과같은 談話를 通하여 公正한 民主選擧의 示範이 되길당부하였다。(編輯子)

選擧에 關한 談話

總長 金法麟

이제 나라에서는 政府의 民政移讓을 앞두고 大統領選擧와 國會議員의 選擧를 施行하게되었고 우리學園에서는 學生諸君의 自治活動의 指導陣容을 編成하는 契機가 되는 것이며 民主社會의 公正한 運營을 實習하는 課業이되는것이다。 이重大한 意義를가진 行事에 對하여 나는 몇가지 注意할點을 들어 學生諸君의 參考에 供코저한다。

첫째 「投票하는 마음의 姿勢」 ‖民主社會의 構成員에게 가장 貴重한것은選擧權이아닌가。 내가 던지는 한票가 社會의 全體에 미치는 影響을 먼저 생각해야 할것이다。 全體의 活動에 指導的 任務를 맡을會長이나 代議員을 뽑을때 내 意思를 表示하는 票를 어찌 忽히 던질 것인가。 全體의 益을 念頭에 두고, 有能하고 公正하고, 責任感있고 信義가있는 사람을 고를 것이요 地緣이나 派閥이나, 情實에 얽매지 않아야 될것이다。 저사람은 同鄕人이다, 高校의 同窓이다, 平素의 친구다, 부탁을받았다, 茶도 사주고, 선사도 받았다等 두가지指針 ‖ ①政見의 策定‖ 個人의 살림도 計劃이 있어야 하듯거는 社會의 公務를 맡려고 科의 志望하는 者는 運營計劃을 가져야 할것이다。 한갖 會長이나 代議員이란 名譽를 國得하기 爲하여 아무런 主張과 信念도 없이 候補로 或은 會長의 候補로 나선다는것은 民主社會의 一種의 公金을 빙자하여 私利를 圖謀하는 民主反逆이니 이는 奉仕다。 흘륭한 奉仕로부터 自己의 所信을 大衆의 判斷에 呼訴하여 그 贊否를 受하는것이다。 이것이 民主社會의 宣傳方法이다。 一切의 宣傳方法은 選擧事犯을 招來하기 쉬운것이다。 셋째 「模範選擧를 爲한 두가지制度」 ①選擧公營制‖選擧의 管理는 黨派를 超越한 中立的인 機關이 擔當하는것이 認되것이다。 徹底한 公明選擧가 實施될것이다。 ②選擧費用의 公金制‖ 各大學에서 選擧委員 施될 것이다。 이 宣傳의 方法은 文書式은 演說로서 公開的으로 發表할것이요 私的會合에서 秘密로 開催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天下의公的인 누구에게나 공평한 所見은 大衆의 判斷에 맡길것이다。 누구에게나 알려서 좋다는것은 自己의 所信을 숨김없이 널리 알려서 天下의 大衆의 批判하도록 할것이다。 公正한 選擧는 私事가 아니다。 수군거리는 말이 아니다。 누구에게나 알려서 거리낄것이 없고 누가 들어도 좋다는것은 確固不動한 信念으로 自己의 所信을 外치아야할 것이다。

私心은 民主의 反逆

投票는全体의 公益을 念頭에 建設的 政見으로 決定

劇界中興을다짐

‖創立公演은 11月初開校記念日에‖ 東國劇會創立總會盛了

東國劇會 創立總會가 지난十四日 午後二時第三十五講義室에서開催될 劇界에서 열렬한 歡迎을 받아 나타내게 되었다。

崔載福同門의 열렬한 인사말에 이어 韓國劇藝術의 아버지 「아그노엘」 敎授가 다음과 같이 演說하였다。

「아그노엘」 敎授는 東洋語學科 「숭본는」 大學 主任敎授인 佛蘭西 「숭본는」 大學 敎授로서 東國劇會 顧問이 되어줄것을 부탁했으며 「民衆에게 새로운 劇藝術을 보여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였다。

柳 致眞·李海浪·李光來敎授들의 祝辭를 받은 東國劇會는 午後三時 第一回 定期總會를 開催하고 時議長에 崔載福同門을 選出한 뒤 全文十三條로 修正通過시킨 金總長의 名譽會長·金法麟總長 ▲總務幹事·鄭琅·▲敎務幹事·敎賢穆·▲文藝幹事·吳學榮·▲涉外幹事·宋赫·▲會計·李一雄·▲財政幹事·申基宣·▲金銀洪·▲企劃幹事·崔載福·▲金興雨·▲總務·▲庶務·▲宣傳·▲舞臺幹事·金在衡·▲長·李昌九·▲長·▲長·▲長

社說

徹底한 明朗選擧로서 東大의 名譽를 빛내자

—學生會任員選擧에際하여—

學生自治機構의 選擧時期가닥쳐왔다。學生會의 正·副會長과 各單科大學의 會長選擧가 그것이다。이미 選擧日字도 公告되어있으므로 지금부터 이에對한 選擧活動이 活潑히 展開될것으로 期待된다。

元來 學生會의 選擧는 두가지 意味에 있어 敎育的意義를 가진것이다。하나는學生들의 自治活動 또는 自治能力에 對한 訓練의意味이고 다른하나는 民主主義에對한 訓練의 意味이다。이런 두가지意味에서 볼때 學生會의 任員選擧는 學生들이 가지고있는 平素의 自治能力과 民主主義에對한 日常的인 習性의 表現이라고 볼수있다。即 平素부터 自治能力이나 民主的訓練이 잘되어있으면 選擧는 良好하게 進行될것이오、그것이 잘못되어있었다면 選擧는 不美스럽게進行될것이다。多幸히 本校의 경우를보면 平素의 自治能力이나 日常的인 民主的習性이 良好했다고 볼수있다。그것은 지금까지의 學生會의 活動이나 各種學會의 發揮해왔을뿐아니라 特別히指摘될만한 非民主的인生活習性이 있었다고는 별로 생각되지않기때문이다。이런 觀點에서볼때 이번의選擧가 有終의結實을 거두리라는것은 거의 疑心할餘地가 없다。

그러나 도리켜 생각해볼때 平素의 自治能力이나 民主的인 訓練이 相當히良好한 大學에서도 選擧活動에 있어서는不美한 事態가 흔히 發生되는事例가 있는것을 보게되는것은 一抹의 不安을 禁할수없게하고있다。이것은 他校의 例이지만 學生會의 任員選擧에 暴力과金力이 亂舞한事態같은것이다。知性社會에서 行해지는選擧가 그밖에 어떠한 不美한 要素도 大學社會의 選擧에 介在되어서는 안된다는것은 이미 누구나 다 잘아는 하나의 常識이지만 立候補者가人氣를 모우기 爲해서 實踐不可能한 事項을 公約으로서 내 세운다든지 自治的範圍를 벗어난 問題의 解決을 主張한다든지 하는것과 같은것도 一種의 脫線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有權者가 學生會全體의 立場을 떠나 所屬大學 科別 學年 親分등의 立場에서 立候補者를 評價하는것도 健全하다고는 볼수없을것이다。

더욱 重要한것은 選擧때문에 學生들의 親交나 融和가 決코 破壞되어서는 안된다는것이다。選擧때문에 校內 學生自治機構의 團氣가 分裂과 對立의 底流를 만들어낸다면는 이것은 選擧의 本來의 精神에背馳된 結果가 아닐수없다。選擧結果如何를 不問하고 人和와 團結의 雰圍氣가 損傷되어서는 안될것이다。그러기 爲해서 選擧는 始終一貫 理性的自覺위에서만 行해져야 할것이다。選擧의 結果는 勝敗의意識에서 判斷할 것이 아니라 善意의 敎育的 競走로 判斷해야 할것이다。

多幸히 本校는 選擧에 있어서의 不正을 미워하는 傳統이 있다。平和的이고 友好的인 秩序整然한 明朗選擧가 徹底히行해짐으로서 本校의 名譽가 學生들의 自治的인 民主的力量을 通해서 한層더 높이 發揮되기를 期待하는 바이다。이것은 絕對多數의 學生들의 總意이며 本校總長以下 모든 敎職者들의 간절한 부탁이기도 한것이다。

새로운 人間像의 創造를

金法麟 總長

中世紀의 찬란한 歷史와 문간한 思想的 背景을 가지고 있는 우리大學에서 人과 이 先後輩藝術家들이 이처럼 모여劇會「東國」을創立하는데있어 그 기쁨마음을 감출수가 없읍니다。

나는 劇藝術을 남달리 깊게 硏究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항상 깊은관심을 가져왔었읍니다。

韓國의 演藝界重鎭들과여러同門들 앞에서 劇藝術에 關해서 얘기한다는게 오히려쑥쓰럽습니다만 「東國」의 내일을 祝福드리는 뜻에서몇말씀 드리겠읍니다。라하는것은 희랍어에서온 英語로 DRAMA 라는것인데 「이미 行해진것」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씨어터」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行動의藝術」이라는意味입니다。求景하는場所」即舞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또한英語의 「씨어터」와 佛語의 「떼아트르」도 그 行動과 動作、바로 그것을意味하며 動作과行動의 藝術은 소리의藝術인 音樂이나 빛의藝術인 美術이나 言語의藝術인 文學보다도 더욱 體的인 動作과 行動 感動을줄수있는 것임니다。이것은 言語나 소리나 빛보다도 動作과行動의 眞理를 得하는게 철신앞서기 때문이요、漢字의「體」자 「몸으로 얻는다」는 뜻、바로그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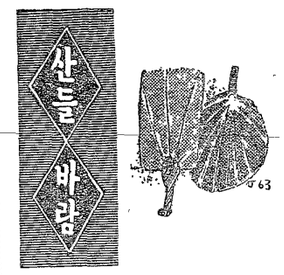
이러한具體的인 行動과 動作으로서 깊게 그리고 리얼하게 眞理를 깨닫게해주는것 이바로 綜合藝術인 劇인것은 再言할 必要도 없겠읍니다。

아무리 映画가 發達된機械를 使用하여도 이말로 發達된 藝術의 形態입니다。

古代의 희랍·로마로부터 東方諸國에서 存在해있었으며 그래서劇이 그리고 지금도 꾸준히 있어오고있는 綜合藝術인 劇은 나 一人에 對한 集團、한사람이 여러사람 또는 藝術家 感動을주는 藝術이 있을때、當時는 職爭中 이었으므로 理解되지못 들로부터도 그 價値가 認識되지 못했던 劇藝術이 가장 根本的인 藝術이요 藝術의 從寡해오고 또 그러기 때문에 그 演藝藝術은 그러므로 우리는 同胞들 앞에 서 있는 사람들로 이에 맞는 우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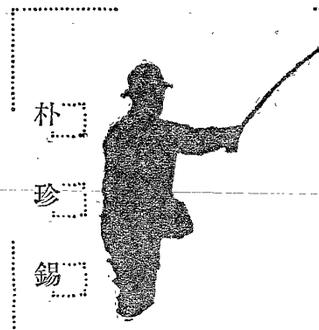
산들바람

李龍範



낚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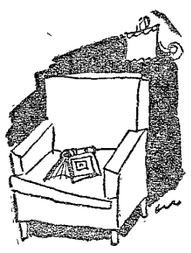
朴珍錫



直前難關

鄭璡 — 暴雨속의 小白山頂

隨筆三題



소나기가 데모群衆처럼 몰려와 隊列을어지럽힌「가이더」의 獨走는 禁物

會員들이 부끄럽다고 그런소릴하니까 不親切하다지

東大新聞社學術賞

社告

1、學術賞의 種類 ㄱ、人文社會科學賞 ㄴ、自然科學賞 ㄷ、創作文學賞

2、應募要領 ㄱ、人文社會科學賞 自然科學分野는 各攻學科에 關한 研究論文으로 分量은 二百字原稿紙70枚以內 主任敎授의 추천을 받아 提出한다 ㄴ、創作文學分野는 詩(五篇以上) 小說(一〇〇枚以內) 戲曲(一〇〇枚以內)으로 한다 (但朱筆表作品에 限함)

3、應募資格 ㄱ、本校在學生에 限한다

4、審査方法 ㄱ、該當分野別作品募集에 當選된 者로서 審査委員會가 該當部門에 推薦한 作品을 募集하게 되었아오니 다음 要領에 依하여 많은 應募가 있기를 바랍니다

學生들의 學術研究와 創作意慾을 북돋우어 참신한 學風을 수립하는데 拍車를 가하기 위하여 制定된 東大新聞社學術賞은 在學生여러분의 期待裡에 作品을 募集하게 되었아오니 다음 要領에 依하여 많은 應募가 있기를 바랍니다

記

作品募集

人文社會·自然科學·創作文學등三分野

接受는十月一日부터十五日까지

1、學術賞의 種類 ㄱ、人文社會科學賞 ㄴ、自然科學賞 ㄷ、創作文學賞

2、應募要領 ㄱ、人文社會科學賞 自然科學分野는 二百字原稿紙70枚以內 ㄴ、創作文學分野는 詩(五篇以上) 小說(一〇〇枚以內) 戲曲(一〇〇枚以內)으로 한다 (但朱筆表作品에 限함)

3、應募資格 ㄱ、本校在學生에 限한다

4、審査方法 ㄱ、該當分野別作品募集에 當選된 者로서 審査委員會가 該當部門에 推薦한 作品을 募集하게 되었아오니 다음 要領에 依하여 많은 應募가 있기를 바랍니다

5、施賞 各部門別 賞金은 五千원

6、作品提出期間 十月一日부터 同十五日까지

7、作品提出處 本社總務部

8、審査結果發表 十一月初 本紙上

9、審査委員은 本社에서 위촉한다

其他 자세한것은 本社總務部에 問議할것

一九六三年九月 日

東大新聞社

本校 네敎授에 研究費를 支給

校內放送 要員 男女六名合格

創造에의길 「가이드」 獨走는 禁物

自由의 안 밖으로 奴隸搾取가 盛行하고 있는 매마른 이땅에서 우리들은 <思想의 씨앗>을 찾아야 한다…… "유럽" 文明에 反旗를 들은 亞細亞의 <타고올>은 不幸과 苦痛과 눈물이 眞實한 創造에의 길이라는 것을. 보라! 그의 珠玉篇을!

— 高級製造 洋裝 케스入 값 140원 —

眞理란무엇인가

"實在은 不安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不安속에 살고 죽어야 할 宿命을 지니고 있다."……實存哲學의 巨星 <하이덱가>가 苦悶하는 現代를 銳利하게 分析, 핵부하고 切實히 要望된 새로운 世代를 提示한 問題의 名著 — 高級製造 洋裝 케스入 값 130원 —

新潮文化社 (72) 3652

監督 俞奬穆 製作 車泰辰

斬新한 青春스타들이 보내는 石坂文學의 快心作!

原作 石坂洋次郎

푸른꿈을 빛내리

最高의 배스트셀러! 最高의 感動映畫!

CINEMASCOPE

上映中 명동 명보 명화 명동 명보 명화 명동 명보 명화

極東興業株式会社 製作

法典 考試法典 外國法典 갖필요한 여러분의 法書

本書의 特色

1, 全基幹法과 主要國際法의 完全收錄
2, 携帶의 便利와 索出의 簡便
3, 改正任用令에 依한 四,五級公務員受驗·學生等 初步的인 法律研究에 最適의書
4, 勞動關係法同時收錄
5, 一般家庭常用法典으로도 最適의書

포켓 法典

法典刊行의 總本山인 玄岩社가 보내드리는 또하나의 巨彈!

포켓版·3段組420面·케스入 비니子銀箔洋裝 定價150원

서울鍾路区仁寺洞119-1 ⑧4500對替口座서울987 玄岩社 및 有名書店發賣中

收錄된 最新法令
(新) 國家公務員法—勞動組合法—勞動
(新) 公務員任用令—爭議調整法—憲法 兵役法—上 (新) 商法

가을에

李愚碩

나의 눈이 꽃에게서 嫉妬를 받은 날 아무 와 둥지를 틀고 햇볕은 黃金의 나무를 심고 祝福하는 나무를 심고 갔다.
꽃은 그 때부터 수녀처럼 오엿이 新禱하며 않아 내 눈에서 꽃피는 나무를 위하여 울리고 바람을 막아 물을 이제 나는 잘 익은 열매 속에 들어 꽃의 食客이 되는수 밖에 없다.
가을인가보다. 窓을 열면 잠든 누이 치맛살에 밀려드는 波濤 달빛에 서면 흩치 내 키는 銀杏잎을 주어 가장 맛난 어머니 말씀을 떨리게신 아두래도 가을은 설운이 끼리라야 고운 눈 뜨고 잊어진이 끼리라야 책욕은 마음도 뜬다. 「빠아르테느」의 속살거림이 낯잠을자는 뜨레 우제통 앞에 닥아선 얼매속에 들어 금빛의 女人은 한품을 한다. 가슴을 풀라, 가난한 이여 잔당할 수 없는 눈물 쓰라린 襤褸일망정 아랫일 때문이라는 證據이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생각하면 그러한 그러니까 一時 的으로나마 그들 좋아했던 증거로서 미워지는 나 자신부터 우어의 女子賤 쇼펜하우어의 女子 復讐主義 共鳴을 주는 때가 없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나는 눈을가리고 나 그렇다 理性의 눈을 감고 나 마음 의 平定을 찾고 내 마음 의 武器를 갖고 산산히 부수고 理性의 눈을 감은 보자기로 가려버린다. 그러는것 妙한것이다. 일찍 내가 너무 좋아 일이 없이 일어가야 할 것이다. 葉脈이 있고 잎도 絕 잎이 있는 눈물 그 뜨라 가난한 이여 수 없는 눈물 아랫일망정 내 너무 좋아 아랫일망정 내 너무 좋아 없는 눈물 아랫일망정 내 너무 좋아 없는 눈물 아랫일망정 내 너무 좋아 없는 눈물